

김자연, 생명의 기쁨

☞ 서성록 (인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 김자연의 화면은 강쾌한 리듬과 화려한 색채로 물어 있다.
- 강쾌하다. 못해 태양 광선을 등백 틀어미신 것처럼 건강미가 넘친다.
- 분비질이 볼듯 화사한 색상들이 나뭇거리고 나뭇기 꽃에 보이와 있을 때처럼 기쁘하다.
- 생명이 고동치는 자연의 슬결과 마주하면 마음이 술렁이듯이 김자연의 그림도 자연의 강함에서 오는 설렘을 화면에 담고 있다.
- 일종의 시각적인 자연 여행'을 즐기는 느낌이다. 이렇듯 김자연은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김자연은 동대대학교 사당학과와 동대대학원 사당학과를 졸업하였고, 지금까지 삼국미술관 예술의 전당 화가림미술관 인사아트센터, 빛갤러리 등에서 30여 회의 개인전 및 여러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현재 오리진화협회회원 화원과 한국미술협회회원으로 있으며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김자연의 작품은 생태계의 이미지를 닮아서인지 친숙하게 느껴진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푸르름으로 채워진 숲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보다 흥미로운 것은 '대상과의 사림'이다. 만일 예술가들이 '관찰'에만 몰두한 나머지 '대상과의 사림'을 잃어버린다면, 감동적인 작품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상과의 사림'에서 오는 은밀한 희열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교감의 즐거움을 전할하기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자연의 작업에서 두드러진 뚜렷한 색채와 리듬감은 자연과의 긴밀한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름다운 황혼녘의 드라마에 정신이 팔리듯이 그의 그림도 자연 경관에서 오는 충만한 감정을 화면에 담고 있다.

그래서 그의 화면에 등장하는 이미지들 역시 자연에서 빌려온 것이다. 식물의 잎사귀, 줄기, 나뭇가지 등 모두 우리가 눈만 둘러면 접할 수 있는 것들이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줄기가 화면 중앙이나 귀퉁이에 자리하여 공간의 균형을 잡아주거나 크고 작은 잎사귀들과 화려한 색상은 무성한 숲을 연상시키는 식이다. 그 밖에도 달과 산, 창공을 암시하는 이미지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들은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작가는 대상 자체보다 자신의 감각에 자연물이 어떻게 작용하고 효과를 미치는지를 중시한다. 바깥 대상이 내면에 들어와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는 상태를 응시하고 또 나타내고 싶은 것이다.

생명의 소리

물론 그가 처음부터 자연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은 아니었다. 김자연은 90년대에는 물성적인 작업, 2000년대 초에는 단색의 평면에 드로잉을 연동시킨 바 있다. 특히 2000년 이후로는 질체된 듯하면서도 함축적인 표현 세계를 구축해왔는데 드로잉을 통한 힘의 배분, 능숙한 질로 처리, 매끄러운 공간 운영으로 화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때의 작품들은 문인화처럼 채운 부분보다 비워진 부분들이 많았다. 만들었다기보다 우연히 생성된 것처럼 무리가 없고 자연스러웠다. 색을 절제한 것도 그렇고 여백을 강조한 것도 그렇고 작가는 수묵 대신 서양화의 재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다를 뿐 성격상 동양화와 유사점이 많았던 것 같다. 구체적인 주제를 갖고 있는 그림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움을 표상하는 화풍을 구사하였다. 말로 할 수 없는 상매를 무언의 그림 언어로 표현하였다.

작가는 2000년대에 다시 한 번의 변신을 꾀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화풍에 가장 근접한 양식, 즉 보다 직접적인 이미지와 에너지가 공급된 그림으로 귀착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륜이 쌓일수록 색조를 탈각해 버리거나 무표정해지기 쉬운데 그의 경우는 생기가 들고 젊어졌으니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화면 속에 컬러와 문적이 분주히 드나들면서 잠잠하던 공간이 어느덧 시끌벅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해버렸으니 말이다.



1. Habibi, 53x72.5cm, 혼합재료, 2007

기본적으로 그의 그림은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생명의 소리란 침묵을 깨는 소리와, 활력을 부여하며, 자연계의 온갖 아름다움과 호응하고 교감하는 상태를 말한다. 생명의 울림에 반응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자연을 받아들인다. 맑은 햇빛, 청정한 숲, 신선한 공기, 넓은 하늘, 푸른 들판, 바람 소리, 봄날 어지러움, 시냇물, 물개구름 등 대지가 기쁨으로 흥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신비한지 알게 된다.

그에게 그림은 생명의 청정한 소리를 담은 음반과 같다. 때마침 감성을 회복하는 데는 바람과 비, 그리고 흐르는 물만큼 좋은 음악도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뭇잎이 나부끼고 잔잔한 바람이 불며 식물들의 쑥쑥 자라는 움직임도 놓칠 수 없는 장면이다. 계절마다 매년 새 옷을 갈아입을 뿐만 아니라 삶과 여유를 제공하는 자연물은 참으로 고마운 존재이다. 요컨대 그의 작품은 생명의 동향에 귀를 기울이되 자연에 대한 풍부한 정서적 방향에서 수분을 섭취하고 궁극적으로는 신의 은총이라는 햇빛을 맞으며 자라나 예술이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은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다. 특별한 공간 구성도, 주도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전면회화처럼 공간이 캔버스 바깥으로까지 확산되어 나갈 기세이며 화면은 외부의 속삭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연에서 흘러온 여러 표정을 대단히 풍부한 음색으로 직조해가는 것이다. 자연의 모습을 이처럼 추상적으로 변용시켜 생의 절정과 환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작렬하는 생명의 불꽃이 화면여기저기기에 피어있는 듯한 기분이다.

최근 그의 작품에서는 '원색적인 색조와 '유희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구체적인 이미지보다 색깔 자체만으로 충분히 생명의 결을 포출하고 있다. 화면은 각종 원색의 물결로 너울거린다. 작가는 색조를 생명의 맥박을 건져 올리는 매개물로 사용하고 있다. 자연물들이 봄철에 가지개를 활짝 퍼뜨리 세뻛을 티우는 생명의 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생명의 벽간 감동과 유희성이 풍부한 신체의 리듬을 작품에 보태고 있다. 작품을 들여다보면 색채 언어와 더불어 어지러워진 드로잉이 자리 잡고 있다. 허나하나의 드로잉이 '표정'을 지니고 있기니와 스스럼이 없다. 예술은 유희적 충동에 의해 발아된다고 했던가. 어린아이가 크레파스를 들고 도화지에다 뽀뽀를 꼬적거리듯이 작가는 붓과 목탄으로 화면에 흔적을 남긴다. 그렇다고 무의식적인 자동 기술법처럼 혼잡스럽거나 무질서한 것도 아니다. 작가는 공간의 정경을 살펴가며 객체적소에 '낙서'를 날림하게 추구한다.

회화에선 이런 작업을 드로잉이라고 부른다. 흔히 드로잉은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의 습작 정도로 받아들여지만 그의 경우는 자유스런 선의 효과를 회화에 적용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의 드로잉은 그림에 풍채를 돌리는 바람처럼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덕에 그의 작업은 추상적이더라도 사마함과 긴조함, 그리고 냉랭함을 피할 수 있다. 어설픈 논리의 지배를 받기보다 생명 자체에서 얻어진 것을 적극 표출하고 있다. 이 점이 바로 그의 회화가 풍부한 시적 정취를 간직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천부의 손길

축복의 비를 맞고 자란 나무는 푸르른 잎사귀와 눈부신 꽃, 다디단 열매를 맺듯이 그의 그림은 소망스런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사사로움 욕구보다 크고 절실한 무언가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생명의 기쁨이 세상의 한 귀동이 에 있기보다는 세상의 중심에 있게 하기 위해 애쓴다. 탈무드에는 "다기를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땅에 두셨으나 우리가 미치지 못하지 못한 모든 좋은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월의 긴 회랑(回廊)을 숨가쁘게 뛰어다니는 동안 우리가 장



서성복 연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들의 타지다움', '책수군',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도리 미술 100년'이 있다.



Habibi, 53x45.5cm, 혼합재료, 2007

작 보아야 할 것들, 감사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밤을 배워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실제 적극적인 관찰이나 폭넓은 조망에는 상당히 인색한 편이다. 그의 그림이 흥겹고 즐거운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종교적인 영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시키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김지연은 말걸음을 늦추고 시선을 집중하여 그분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찬찬히 성찰한다.

김지연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생명의 물결로 가득 차 있는 자연에서 우리는 한 치의 빈틈도 발견할 수 없다. 어찌 그뿐이랴.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자연 세계를 따라 '원색의 마음'으로 파랑과 노랑게 물들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